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적 정책기반 조성방안

- | | |
|--------------------------|-------------------------|
| 1.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발전과정 | 4.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 2.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 5. 서울시 성인지적 문화정책기반 조성방안 |
| 3. 문화정책과 젠더 이슈 | |

1.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발전과정

- 성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과 성별영향평가(gender based analysis)의 개념
 - 성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시에 지역, 계층, 연령별 요소를 반영하듯,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를 정책 전 과정에 반영하는 것임.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평가방법의 한 가지로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음.
- UN의 여성정책 발전과 성별영향평가
 - 1970년 보즈럽(Boserup)은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란 연구를 통해 제3세계 국가에서 여성이 경제발전 주체로 큰 공헌을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계획에서 배제되고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냄. 1972년부터 유엔의 기금을 받는 모든 개발사업은 사업과정에 여성을 포함하고 고려하도록 제도화됨. 이후 효율성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여성 역할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음.
 - 1975년 ‘제1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이 경제개발과정에서 기회와 자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WID(women in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하였음. 이 전략은 경제성장에서 배제된 여성문제를 여성을 위한 별도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이 전략은 공·사영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간과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음.
 - 1985년 ‘제3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일반정책에서도 정책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함. GAD 전략의 핵심내용은 모든 정책에 동등하게 남녀 관점을 통합반영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정책 성별영향평거나 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후 유엔은 경제개발지원 및 구호사업 등을 하면서 사업특성에 따른 여러 유형의 성별영향평가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왔음.

-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각 국가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하였음.

○ 국내 및 서울시의 여성정책 발전과 성별영향평가

-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01년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의 '지방자치단체 세계 여성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함. 이 선언문은 지방정부가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의 이념을 받아들여 모든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통합 및 성별영향평가 도입 등의 행동강령을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서울시는 2004년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2.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주체와 평가시기

- 성별영향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평가주체가 되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사전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서울시 공무원 조사¹⁾에 의하면 공무원의 77%는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평가주체에 대해서는 40%가 외부전문가를, 36%는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추천하였고, 28%는 부서별 자체평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대체적으로 정책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은 현 상황에서 자체평가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1) 신경희, 2003, 「서울시 성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성별영향평가들과 평가지표

-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수단이 되는 평가지표는 평가목적, 평가대상사업의 유형, 평가시기, 평가주체, 여성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발전되어 왔음. 시점과 평가주체에 따라 평가도구로 사용되는 평가틀 및 개별지표의 구성체계가 달라짐.
- 국가 차원에서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도입한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정책 담당자가 정책 전 과정을 직접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우리나라 여성부가 2004년, 2005년에 개발한 성별영향평가틀도 정책 입안, 집행,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들을 평가하여 사업간 서열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에게 정책 과정에서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체의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지는 것임. 이런 점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대부분 질적 지표로 구성됨.

○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 여성부는 2004년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10개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음. 외부 전문가는 여성부가 제시한 <표 1>의 평가지표(2004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음. 2004년 실시한 10개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부는 2005년 수정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2004년 평가지표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내부평가용 지표체계에 적합하였다면, 2005년 지표는 외부평가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추가되었음.

3. 문화정책과 젠더 이슈

○ 문화 다양성

- 유네스코는, 문화적 창의성은 문화적 다양성에서 나오며 여성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성문화예술활동이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므로 중요하다고 봄.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문화예술활동과 공헌은 무시되거나 저평가되어 왔으며, 사회적으로 여성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장려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여성예술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함. 유네스코나 유럽연합의 문화정책에서 젠더 이슈는 차별이나 격차 해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표 1>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표 체계

정책단계	2004년 평가지표	2005년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정책입안 · 결정단계	①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인지여부 ② 계획서 등에 성인지적 통계 사용 여부 ③ 서비스 혹은 자원 양성균등전달 고려여부 - 아니라면, 해결대안 마련여부 ④ 정책 가치·이념의 성역할 고정 관념 극복에의 기여여부	성별 관련성 파악	① 정책 기획시, 성별이슈 확인 및 반영여부 ② 정책자료에 성인지 통계수집 및 사용여부
		양성평등 목표와 정책수단	③ 정책의 목적·수단의 양성평등 계획·방향과의 부합여부 ④ 정책목표의 여성관련 목표 포함여부
		정책입안 과정에의 양성평등적 참여	⑤ 정책의 자문과 심의·의결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보장 ⑥ 정책입안담당자의 양성평등관점 인지여부
정책집행 단계	⑤ 정책추진과정에서 서비스와 자원의 양성균등 전달여부 - 이를 입증할 성인지적 통계 자료의 구비여부	성별예산	⑦ 예산 편성시, 성별 형평성 고려여부 ⑧ 여성을 위한 별도예산 책정여부
		정책서비스 전달 및 홍보	⑨ 서비스방식의 성별현실 고려여부 ⑩ 정책홍보방식의 성별 정보접근성 고려여부
		정책집행자의 양성평등 관점	⑪ 정책집행담당자의 양성평등관점 보유여부 ⑫ 정책집행담당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훈련 실시여부
정책평가 단계	⑥ 정책만족도의 성별 동등성 ⑦ 성역할 고정관념에의 긍정적인 영향 미친 정도 ⑧ 정책수혜의 성별 형평성 - 성별격차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여부 ⑨ 정책집행성과에의 성별요소 포함여부 및 전달여부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⑬ 정책수혜의 성별 형평성 ⑭ 정책만족도의 성별 동등성
		성별정책성 및 영향	⑮ 성별 성과목표와 결과의 일치여부 ⑯ 정책 집행결과의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에의 기여여부
		분석결과의 환류 및 반영	⑰ 양성평등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개선안 마련여부 ⑱ 성별영향분석결과의 환류장치 마련여부 ⑲ 정책결과보고서의 성별영향분석 포함여부

○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성

- 유네스코 및 유럽연합의 각국 문화정책 연구에 의하면 예술대학 출신 여성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예술가 수가 남성에 비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소득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함. 유네스코는 여성예술가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장애요인이 많으므로 여성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유럽 국가들은 문화정책의 젠더 대표성 이슈와 관련해 문화시설, 문화기관 등의 의사결정직 및 고위직에 여성 진출과, 공공기관의 예술작품 구입이나 지원금 배분 시 성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화·여가 향유의 접근성

- 문화·여가 향유의 접근성과 관련한 젠더 이슈로는 거리·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등이 있음. 거리·물리적 접근성 이슈는 문화여가시설 이용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리나 교통편의성에 더 민감하다는 것과 시설이 입지한 주변환경 및 시설의 안전, 보안 등의 요인이 여성의 시설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경제적 접근성 이슈는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저임금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본인보다 자녀교육비에 투자하는 등의 이유로 문화여가활동 비용과 관련해 상대적인 부담을 더 가진다는 것임.
- 시간적 접근성 이슈는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데 남녀 모두 시간부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나, 여성의 경우 더 그러하다는 것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 및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 있어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임.

○ 문화·여가의 취향

- 남성과 여성의 문화·여가 취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여가활동에서 성별 취향 차이가 뚜렷한 분야는 체육활동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육 관람이나 직접 참여하는 비율이 낮음. 반면에, 서울시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등의 공연과 미술전시회 참여율이 높음.

○ 성역할 묘사

- 문화정책 젠더 이슈로 문화예술물, 특히 영화 및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성역할 묘사와 관련된 논의가 있음. 유럽 각국의 조사에 의하면 대중매체에서 여성을 성 상품화하고, 폭력의 희생자나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짐.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를 균형있게 하고 정형화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음.

4.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성별영향평가의 범위

- 서울시 문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서울시 문화국과 문화기관²⁾의 정책방향과 사업, 조직 등에 대해 포괄적 평가를 함. 포괄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성인지적 문화정책 및 성별영향 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 저조와 성별영향을 고려한 문화사업이 없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환경 여건을 포함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평가방법

-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는 <표 2>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음.

<표 2>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지표와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방법
I. 정책 입안 · 결정 단계	① 성별 정책방향, 목표 설정여부 및 수준	a 문화국 '2005 성과관리계획' 분석 b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문화비전 서울 2015' 계획 분석 c '시정4개년 계획(2003-2006) 「문화·관광 분야」' 분석 d 서울시 4개 문화기관, 14개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의 '2005 사업계획서' 분석
	② 성별통계 수집 및 활용수준	a 문화국 및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서 분석 b 문화국 공무원, 문화기관, 청소년 수련관 설문조사
	③ 성별 성과지표 설정 여부	a 서울시 문화국 2005 성과관리계획서의 성과지표 분석 b 서울시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 2005 사업계획서 분석
	④ 의사결정과정의 양성 참여수준	a 문화국 및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의 직급별 성별 구성비 b 문화국 및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의 위원회, 이사회 성별 구성비
II. 정책 집행 단계	⑤ 문화분야공직자의 성인지 수준	a 문화국 공무원,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 직원, 문화국 위원회 위원 대상 설문조사
	⑥ 성별예산편성여부 및 수준	a 2005 문화국 및 문화기관, 청소년수련관의 2005 사업계획서 예산분석
III. 정책 평가 단계	⑦ 사업 참여자 및 이해자의 성별 구성비, 만족도	a 시립미술관 보유작품 작가 및 작품의 성별 구성비 b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성비 c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자 성비 d 문화재 지킴이 성비 e 문화유산해설사 성비 f 관광사진전(1996년-2004년) 선정작가 작품 성비 g 청소년 풋살교실 참여자 성비 h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참여자 성비 및 만족도 분석
	⑧ 성별 고정역할 극복 및 여성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	a 서울여성영화제 사업 운영자 및 관객 심층면접 b 청소년 풋살교실사업 참여 지도자 및 참여 여자청소년 심층면접

2) 문화국에 청소년담당관을 포함하였음. 문화기관에는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 14개가 포함됨.

○ 정책입안·결정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정책입안·결정단계의 성별영향평가 4개 지표별 평가결과는 <표 3>과 같음. 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는 성별영향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음³⁾.

<표 3> 정책입안·결정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1. 성별 정책 방향, 목표 설정 여부 및 수준	- 문화국 사업계획서 분석	(문화국) · 2003년 10월에 수립된 「2003-2006 시정4개년계획 문화관광분야」에는 성별정책방향·목표, 과제가 없음. · 「2005 문화국 성과관리계획」에는 성별정책방향·목표는 없음. 48개 주요사업 중, 사업명칭에서 성별 사업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여성을 사업명칭에 명시하고 있는 '서울여성영화제 지원',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시청여자축구단 지원' 등 3개 사업임. · 2005년 9월 현재 수립 중인 「문화로 행복한 서울을 위한 문화비전 서울2015」에는 비전과 철학에서 문화향유 참여는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성별 차이로 인해 문화향유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29개 과제 중에서 '문화격차와 문화소의 해소',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여건조성'의 2개 과제에서 성별 문화향수 차이를 지적하고 여성과 관련된 문화사업 4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 「문화비전2015」의 경우 문화기본권과 성별 차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앞의 두 계획에 비해 일보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향유 차원에서 성별 차이를 간단히 언급하고만 있으며, 문화생산을 포함한 문화정책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방향이나 목표는 없음. 여성문화사업으로 제안된 사업도 문화국의 사업이 아닌 여성정책과의 사업이란 점에 한계성이 있음.	1.8
	- 문화기관 사업계획서 분석	(문화기관)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14개 청소년수련관의 2005년 사업계획서에는 성별 사업목표나 추진과제는 없음.	1.1
2. 성별 통계 수집 및 활용 수준	- 문화국 사업계획서 분석 - 공무원 설문조사	(문화국) · 「2005 문화국 성과관리계획」, 「2003-2006 시정4개년계획 문화관광분야」의 경우, 성별 통계 제시 및 활용은 없음. · 「문화비전2015」의 경우, 예술행사 연간 관람률 및 연평균 관람횟수에 대해서만 성별 통계 자료 제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문화국 공무원의 16.9%가 업무와 관련해 성별 통계 수집 및 활용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업무와 관련한 성별 통계 수집과 활용 필요성에 대해 약 40%(매우 필요 9.9%, 조금 필요 29.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1.8
	- 문화기관 사업계획서 분석 - 실무자 설문조사	(문화기관)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14개 청소년수련관의 2005년 사업계획서에 성별 통계 제시 없음 · 설문조사에서 문화기관 실무자의 8.7%가 업무와 관련해 성별 통계 수집과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성별통계 수집과 활용 필요성에 대해 약 40%(매우 필요 12.8%, 조금 필요 2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1.4

3) 관련 분야 연구 및 학계에 있는 전문가 10인에게 지표별 평가내용을 주고, 각 지표별로 5점 척도 (1점 매우 미흡, 2점 미흡, 3점 보통, 4점 우수, 5점 매우 우수)로 평가점수를 매기도록 의뢰하였음.

(<표 3> 계속)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3. 성별 성과지표 설정 여부	- 문화국 2005 성과관리계획서 분석	(문화국) · 총 63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성별 분리 성과지표 설정한 없음.	1.2
	- 문화기관 2005 사업계획서 분석	(문화기관) · 4개 문화기관 및 14개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서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이 없음.	1.3
4.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수준	- 공무원 직급별 성비 - 위원회위원 성비	(문화국) · 문화국 공무원 성비는 남성 68.1%, 여성 31.9%임. ·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고, 집 행에 관여하게 되는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짐. 4급 이 상 공무원 중 여성은 없으며, 5급의 경우 남성 93.8 % : 여성 6.2%임. · 문화국 소속 위원회의 위원 성비는 남성 66.7% : 여성 33.3%이며, 위원회 위원장 중 여성은 없음.	2.0
	- 문화기관 실무자 직급별 성비 - 위원회위원 성비	(문화기관) · 기관별로 직원 성비 구성비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직원 비율이 현저히 낮음. · 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이사회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서울시 목표수 준인 30%에 못 미침. · 세종문화회관 - 직원 성비는 남성 77.5% : 여성 22.5%로 문화기관 중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낮음. 1, 2급 중 여성은 없으며, 3급 여성비율은 20%, 4급은 6.2%임. -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음. · 서울문화재단 - 직원 성비는 남성 50% : 여성 50%임. - 4급 이상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은 27.2%임. -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3.3%임. · 서울시립미술관 - 직원 성비는 남성 47.8% : 여성 52.2%로 약 과반수가 여성 직원이나, 5 급 이상 고위직에는 여성 직원 없으며 직급이 낮을수록 여성직원 비율 이 높아짐. -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6.7%임. · 서울역사박물관 - 직원 성비는 남성 62.4% : 여성 37.6%임. - 5급 이상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은 11.1%임. - 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은 18.7%임. ·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 14개 청소년수련관의 직원 성비는 남성 55.6% : 여성 44.4% 임. 4급 이 상 직원 중 여성은 22%임. - 14개 청소년수련관의 위원회 위원 중 여성 위원 비율은 39.6%임. 위원 회 위원장 중 여성 비율은 15%임.	2.2

○ 정책집행 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사결정자 및 집행자의 성인지 수준 평가지표, 성별 예산편성 여부 및 수준 평가지표도 전문가들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

<표 4> 정책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5.문화분야 공직자 성인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국 공무원 설문조사 - 문화국소관 위원회위원 설문조사 	<p>(문화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장급 이하보다 팀장급 이상이 여성 공무원일수록 성인지 수준 및 성별 영향평가 실천의지가 높음. · 양성평등교육 참여경험율은 26.4%, 정책성별영향평가교육 참여율은 11.4%임. 팀장급 이상이 팀장급 이하에 비해 참여율이 높음. · 성별영향평가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46.9%로 나타남. 인지수준은 2.62점(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수준 높음)으로 보통 이하임. · 문화관광부 및 유엔, 유네스코의 성인지적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은 정책별로 최고 68.8%, 최저 9.5%가 알고 있으나, 전반적 인지 수준은 낮은 편임. · 국제기구 및 국외의 성인지적 문화정책의 서울시 적용 필요성에 대해 정책별로 3.63점, 3.7점, 3.78점(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하다고 봄)으로 나타나 필요성은 보통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지표 15개 중에서 업무적용 경험이 있는 지표는 지표별로 최저 6.5%, 최고 17.5%가 나옴. · 성별영향평가지표 15개의 업무 적용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에 못 미치는 3.32점(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부여함. <p>(문화국 소관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위원의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 서울시 업무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 문화 관련 실무자보다 높으며, 특히 여성위원의 인식수준은 남성위원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관 실무자 설문조사 	<p>(문화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문화기관 실무자의 18.3%, 14개 청소년수련관의 실무자 11.6%가 양성평등교육 참여 경험이 있음. 성별영향평가 교육참여는 4개 문화기관 직원의 11.7%, 14개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5.5%가 참여한 경험이 있음.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 교육 참여 경험 비율이 낮음. · 4개 문화기관 직원의 38.1%, 14개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36.2%가 성별영향평가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음. 인지수준은 4개 문화기관 2.40점, 수련관 2.36점으로 나타나, 서울시 공무원에 비해 낮음. · 성인지적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서울시 공무원과 비슷하나, 서울시 정책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서울시 공무원보다 높음. · 4개 문화기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15개 지표 중에서 업무적용 경험이 있는 지표는 최고 10.6%, 최저 2.9%임. 수련관의 경우 최고 18.8%, 최저 7.9%임. · 성별영향평가 15개 지표의 업무 적용 필요성에 대해 4개 서울시 문화기관은 서울시 공무원과 비슷한 정도로 ‘필요하다’에 못 미치는 3.32점을 부여하였음. 수련관은 이보다 약간 높은 3.53점을 부여하였음. 	1.6
6. 성별 예산편성 여부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국 성과관리계획서 분석 	<p>(문화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 · 사업명에 여성명칭이 있는 3개 사업(서울영화제 지원, 어머니 합창단 지원, 서울여성추구단 지원)의 예산은 문화국 총예산의 약 1.02%를 차지함.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관 사업계획서 분석 	<p>(문화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문화기관, 14개 청소년수련관 중 성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없음. 	1.3

○ 정책평가 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정책평가단계의 지표로는 사업 수혜자 성비 및 성별 만족도, 그리고 성별 고정 역할, 성차별 극복에 미친 긍정적 영향 두 가지가 있음. 전문가들은 서울여성영화제 지원사업과 청소년 풋살교실사업에 대해 우수에 가까운 3.7점을 부과했음.

<표 5> 정책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	전문가 평가점수
7. 사업참여자 및 수혜자의 성별구성비 및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및 수혜자 파악가능한 문화국 7개 사업의 수혜자 및 참여자 성비 성별만족도 파악 가능한 문화국 1개 사업의 성별 만족도 시립미술관 보유작품 작가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국 7개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자 성비 서울사랑시민상의 경우 전체 수상자의 6.8%만이 여성으로 수상자가 거의 남성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수혜자 중 여성은 30.6%, 남성은 69.4%로 남성 수혜자가 여성에 비해 약 2배가 됨. 문화재지킴이 사업 참여자의 75%가 남성, 25%가 여성으로, 남성 참여자가 여성보다 약 3배 많음. 문화유산해설사 사업 참여자의 경우 여성이 72.3%, 남성 27.7%로 여성 참여자가 남성에 비해 약 3배 많음. 관광사진전 사업 참여자의 31.9%가 여성, 남성 68.1%로, 남성 참여자가 여성에 비해 약 2배 많음. 청소년풋살교실 사업 참여자의 6.9%만이 여자청소년으로, 사업 수혜자가 남자청소년에 몰려 있음. 사업 수혜자 및 참여자가 특정 성에 치중되는 경향 보임. 문화국 1개 사업의 성별 만족도 청소년수련사업 참여자의 경우 남자 44.6%, 여자 55.7%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양성 참여율이 비슷함. 청소년수련사업 참여자의 성별 만족도를 보면 프로그램 만족도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안전도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만족도가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시립미술관 보유작품 작가 성비 서울시립미술관 보유작품 중 여성작가 작품은 16.2%, 남성작가 작품은 83.8%로 남성작가 작품수가 여성작가에 비해 약 5배 많음. 남성작가 1인당 작품 수는 평균 7.8점, 여성작가 1인당 평균작품 수는 2.7점임. 	1.9
8. 성별 고정 역할 극복 및 여성능력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여성영화제와 청소년풋살교실 참여자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참여자에게 미친 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여성영화제 2005년 서울여성영화제 관객은 약 3만3천명으로, 관람객의 90%는 20대이며, 전체 관객의 약 30%가 남성으로 추정됨. 서울여성영화제는 국내 여성영화인력 발굴과 육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참여 관객이 영화제 참여를 통해 성별 고정역할, 성차별 문제를 상찰하는 계기가 되며, 남성들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함. 청소년풋살교실 참여자 중 여자청소년 비율이 6.9%로 참여자 수는 적으나, 풋살 종목 자체는 여성친화적 팀 운동임. 풋살교실 참여 여학생들은 팀 운동을 통해 체력향상 뿐 만 아니라, 협동심, 책임감, 배려, 대범함, 친화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함. 	3.7

5. 서울시 성인지적 문화정책 기반조성 방안

○ 문화정책 방향과 목표

- 서울시는 문화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문화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유네스코 및 유럽의 문화정책 방향을 수용해야 함.
- 문화정책(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비전 서울 2015'), 또는 문화도시기본조례(제정할 경우)의 비전과 목표에 성, 연령, 계층, 민족, 인종을 초월하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서울 시민 문화권(Cultural Rights)과 문화적 다양성 추구를 명시함.

○ 문화분야 성별통계 생산 및 조사연구

- 문화분야 성별통계와 조사연구는 성인지적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임.
- 서울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조사연구를 함. 문화분야 통계 및 조사는 반드시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분석함. 문화예술인 지원 및 작품 구입 시에는 지원금 지출 및 예술인 자료를 성별 분리하여 작성함.

○ 성별 성과지표 설정

- 참여인원이나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성별 분리 성과지표를 사용함.

○ 문화분야 위원회 및 이사회의 여성 참여율을 50% 수준으로 확대

- 유럽과 미국의 경우 문화관련 위원회나 이사회의 성비 구성은 50:50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비율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서울시 문화국 소속 위원회의 성비 구성은 남 70 대(對) 여 30이며, 문화관련 기관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성비 구성은 남 82 대(對) 18임.
- 문화관련 위원회와 이사회의 여성 참여율을 50%로 확대함. 특히 현재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문화관련 기관의 경우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함.

○ 문화분야에 특화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문화분야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함.

○ 성별 분리된 예산 지원

- 청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사업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참여율이 저조함. 여자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 예산을 별도 책정하여 지원함.

-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작품구입 예산의 남녀 지출비율을 제시하고, 작품구입 예산이 특정 성에 치중되었을 경우, 성별로 분리하여 예산을 책정함.
- 서울여성영화제를 자치구 차원으로 확산 보급
 - 서울여성영화제를 계기로 자치구별로 여성영화제 작품을 상영하는 자치구 여성영화제를 열어 10대와 30·40·50대 이상의 여성 및 남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여성정책과는 양성평등의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여성영화제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함.
- 서울과 여성을 주제로 한 서울여성 연구와 자료 발간
 - 역사 속의 여성, 여성의 삶, 여성의 공헌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서울여성사 연구 및 자료발간을 함. 이러한 기초연구는 실용적 차원에서 서울의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과 역사도시 서울의 문화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신경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55
skhee@sdi.re.kr